

●●● 송태희 부여육계지부장(초대 하림사육농가협의회장)

상생의 길을 찾자



▲ 부여육계지부 송태희 지부장

보고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육계농가와 계열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육계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난 1년동안 초대 하림사육농가협의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육계자조금대의원회 부의원장 및 부여육계지부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송태희 사장을 만나 육계업의 당면 현안 및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계약농가의 선봉에 서서

송태희 사장은 지난 2004년 6월 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지부를 결성하여 회원의 권익에 앞장서고 있다.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2004년 3월 100년만의 폭설 등으로 의욕을 잃은 육계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여에서 6만수의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송태희 사장은 1978년 양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25년동안 부여지역의 양계업을 이끌어 온 장본인이다. 초창기에는 종계업을 경영하기도 하였으나 1994년부터 육계업을 경영하면서 계열화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고 계열사와 농가들이 서로 상생의 길을 걷지 않으면 육계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

송태희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주)하림의 계약사육농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운영위원 및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농가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타 계열사들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계열업체를

대표하는 (주)하림에서는 그렇다할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협의체 구성이 매우 큰 의미로 다가섰다.

송태희 사장이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그동안의 계약관계 불합리가 불거져 나왔고 특히, 병아리 품질문제, 사육비 인상, 상생의 길 모색 등에 주안점을 두고 계열사인 하림과의 협상을 해나갔다. 지난 1년동안 송태희 지부장은 하림 계열농가들에게 연료비 등 계약사육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을 찾아내어 약 4억여원 정도의 금액을 농가에 환원시켜 주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불합리한 계약관계

송태희 사장은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육계 사육조건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했다. 연료비, 깔짚비, 약품비, 사료비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계열사들은 이를 농가들에게 적절하게 반영해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사육수수료만 평균 140원/kg으로 내려 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태희 사장은 양계협회에서 2002년에 육계표준계약사육서를 만들어 보급 및 활용방안을 모색했으나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 하나하나 현실에 맞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물론 사육수수료 인상도 풀어가야 할 과제지만 계약서 내에 있는 일부 문제라도 현실에 맞게 조절해 간다면 수수료 인상의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 예로 연료비, 약품비, 왕겨비 등이 인상되는 비율에 맞게 연동제로 적용을 해 줄 경우 농가들의 불만을 크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농가와 의 불신의 벽 허물어야

육계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계열사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하림의 직영농장 신축과 관련하여 육계인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확히 실상을 파악하고 서로 이해한다면 서로간의 오해가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림 직영농장의 사업을 이끌고 있는 (유)홍림은 육계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2~3개 육계농장을 설립해 단지 하림의 시범농장으로 운영할 뜻을 밝혔고, 종계장도 육계를 사육하는 등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범농장이 설립되는 규모만큼 육계농가가 업을 그만두어야 한다고는 하나 수출규격품 생산에 이바지하는 면도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신중하고 냉철하게 이 사안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계열사들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해 계열사는 농가 교육 등을 통해 사육기술을 보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농가도 물론 사육환경을 보다 개선시키는데 노력해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조금 사업 활성화 기대

송태희 사장은 육계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육계 의무자조금이 조기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0일에 개최된 육계자조금 대의원 총회에서 부의원장의 중책을 맡았다. 당시 자조금을 거출하는데는 합의하였지만 관리위원을 선출하는데는 선출 방법상 딜레마에 빠지면서 아직도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송태희 지부장은 누가 관리위원을 하든 무슨 상관인 있느냐며 3개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 빨리 관리위원을 선정하여 금년내에 자조금사업 사무국이 설치되고 자조금이 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